

# 우리 출판과 문화의 발전

## 이온죽

서울대 사범대 교수·사회학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도 대중사회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여기에 급속한 정보화가 가세하면서 대중문화와 대중전달 매체의 영향이 생각보다 무척 커지고 있는 추세다. 대중의 일원으로 고립된 개인은 행동 준거로서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점점 더해 가고 있으며, 그 영향은 계층과 성별, 나이에 구애됨이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널리 퍼져가고 있다.

그 중에도 TV나 영화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쉽사리 접할 수 있게 된 비디오 등 영상매체와 날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소셜리나 만화와 같은 출판 매체에서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性의 묘사라든가 과격한 폭력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폭력에 의한 인명 살상도 마치 모순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인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전개하는 내용마저 무분별하게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내용에 접했을 때,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가 아니면 각계각층이 다같이 행복감을 느끼며 풍요를 끌고루 즐기는 형편에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문화수용 능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생활 형편도 각양각색이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계층간에 거리가 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같은 종류의 영상물이나 출판물이 사회에 끼치는 효과로 볼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리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소름끼치는 살인행각을 벌인 이른바 '지존파'의 젊은이들도 폭력물 비디오는 물론 몇 권의 소설들을 탐독하고 모방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들은 일본 야쿠자와 폭력배들의 생활과 잔혹한 형태를 그린 「야인」이라든가, 교도소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한 「뽕끼통」과 같은 소설들에 심취하여 거기에 그려진 행위 유형을 닮으려 했던 것을 실토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출판문화가 겪어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우리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던 두 가지 측면을 지적한다면, 하나는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들에 대한 비판 기능이었고, 다른 하나는 암울했던 시대에 마음에 위안을 주는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한편으로는 무작정 '폭로'하는 일이, 또 한편으로는 말초적 '오락'이나 제공하는 일이 주기능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착실히 성취하면서 선진 문화사회로 지향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문화발전의 비중이 더 커지며, 문화의 자정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해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가 균형을 잃고 국민이 불안해 할 때, 빛을 밝혀 주는 것은 역시 문화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판문화가 기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첫째, 비리에 대한 폭로보다는 선한 인간과 사회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악에는 악으로 대응해야 치유된다는 단순논리를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긍정적인 신념을 함양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효율을 숭상하여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자칫 상실하기 쉬운 훈훈한 인간애의 아름다움을 널리 심어주고 상처받은 계층을 다독거리는 문화를 보급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지인물	2	한국현대회곡사 새 지평 연 개척자 「이성계의 부동산」 등 펴낸 이근삼교수
쟁점	4	일본론 출판분, 바로보기인가 낮춰보기인가 - 이숙중
시론	6	이데올로기 시대의 서적 독해와 교단 - 이광주
리포트	8	청소년 독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이색모임	10	박경리씨 「토지」 완간 기념잔치
서평	12	최길성 「한국무속의 이해」 - 박경신 김병국 「분단과 혁명의 동학」 - 공유식
	13	하일브로너 외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김정유
	14	호프만 외 「서양정치사상입문」 - 배병삼
		김경수 「문학의 편견」 - 손경목
	15	배평모 「지워진 벽화」 - 이동하
확대서평	16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두 번역본 - 이재룡
이책을 말한다	18	강신준의 「자본의 이해」 - 이정진
출판사 초대석	19	대중과 함께 하는 사회과학출판사 돌베개
출판화제	20	해외 한국학연구 어디까지 와 있나
이색출판	22	공동육아의 이념과 철학 「함께 크는 우리 아이」
연재기획	23	창조적 단짝 이론 작가와 출판사 지금 이곳의 우리들 어린이책을 위하여 ⑤
해외출판	26	편집의 위기와 편집자의 위상 - 유은영
세계의 책	28	첩보사상 가장 낯선 스파이의 회고록
	30	독자서평
	32	화제의 신간
	34	신간안내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4	200자 안내
	48	재미있는 책이야기
		표지사진/김홍진

### 오직 기자만을 양성합니다⑥

## 新 나뭇꾼과 선녀

아담스 대통령이 워싱턴 근처의 강에서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女記者 애니가 이를 발견하고는 아담스 대통령의 옷을 감추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하께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옷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자회견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비기지도집/대재 및 졸업지(전공무관), 현재 접수중  
입학상담/(02)747-1991 취업보도실/(02)747-1993

대학로 파리크라상위 30m (4호선 혜화역)

한국저널리스트아카데미  
KOREA JOURNALIST ACADEMY

### 알립니다

우편물 요금체계 변화로 정기간행물의 발송일 엄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출판저널 이번호는 10월 20일자로 발행됩니다.